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혁명당 건설!

혁명

5차 희망버스 특보

발행일 : 2011년 10월 8일
발행처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국내외 정세는 희망버스운동의 전진을 요구하고 있다.



'월가 점령' 시위가 3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브로드웨이와 리버티스트리트에 있는 주코타공원은 시위대의 희망광장이 됐다. '시카고를 점령하라', '로스앤젤레스를 점령하라' 등 '월가 점령'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계전에서 진행된 4차 희망버스 모습. 대중들의 구체적인 투쟁요구들을 모아 희망광장 투쟁으로 나아가자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온 희망버스운동의 최대의 정치적 성과는 영웅적인 노화연대투쟁으로 기억되는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대투쟁 이후로 노동계급과 연대하는 투쟁 기풍을 되살리고 이후 투쟁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사에 갇혀 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정치 이슈화하며 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그 동안 희망버스운동은 자본과 공권력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횡수를 거듭하며 대오를 늘리고 굽힘 없는 투쟁을 했다. 이 투쟁은 단순히 대오만 늘린 게 아니다. "소금꽃을 구하자", "우리가 소금꽃이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의 진화,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버스 대중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김진숙과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닌 이 땅의 피착취, 피억압 대중들의 문제로 받아 안았다.

이러한 대중의식의 발전에는 이윤을 앞세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중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물가 폭등, 전세 값 폭등과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4580원, 1천만원 대학등록금 등등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한편에선 우리들의 피땀으로 한줌의 자본가들이 공간을 더욱 늘리고(올해 현대, 삼성의 당기순이익은 5~6조에 이른다)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다(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400조에 달하며 대학들의 적립금은 10조원에 달한다). 한진 자본은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174억 원을 주식배당으로 나눠 챙겼다.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자와 빈곤대중들의 결합과 조직 노동자와 비정규, 미조직노동자의 연대와 단결투쟁의 전망을 열었다. 이 점이 이명박과 한진 자본을 비롯한 전체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자본가 계급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들의 단결투쟁 확산과 대중의식의 발전, 노동자들의 자신감 고조를 가장 두려워 한다. 희망버스운동이 발전하자 이명박과 조중동이 "혜방버스", "부산경제 다 죽인다", "도심을 폭도에게 내주었다"며 당황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진중공업 단사만의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조남호의 배후에 있는 이명박 정권과 전체 자본가와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하며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공세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그 과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투쟁의 확장으로 현재 레임덕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면 더 많은 걸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이명박과 전체 자본가들이 조남호의 배후에서 전선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버스 대중들 일부에서 너무 나이갔다고 하는 "이명박이 해결하라"는 슬로건은, 따라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전망속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더욱 확고하게 부여잡자. 조직노동자,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민중들의 단결투쟁으로 기세

를 더욱 높여야 한다. 5차 희망버스 뿐 아니라 이어질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까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금속노조와 채길용 한진 지회의 수 세적 교섭안과 국정조사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수동적 기대심리와 태도를 단번에 날려 버리고 승리의 전망을 움켜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쟁을 방기하며 야권연대에 기대는 민주노총, 금속을 실질적으로 압박해 투쟁에 나서도록 할 수 있다.

희망광장 점거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자

현재 국내의 정세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명박 정권은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연루로 레임덕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 들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고통전가에 맞서 총파업과 대중시위와 같은 강력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의 고통전가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물결치고 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순순히 개량의 떡고물을 내어 줄 수 없다.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투쟁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정세와 세계적인 계급투쟁은 희망버스투쟁의 전진을 고무하고 있다. 희망버스운동의 기세를 더욱 드높여 나가자. 우리들 스스로의 투쟁의 힘을 믿자.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비정규직 철폐운동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자. 나아가 반값등록금 투쟁,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투쟁,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등 현 시기 벌어지는 대중들의 구체적 투쟁 요구들을 모아 희망버스를 넘어 희망광장 점거투쟁으로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투쟁!! **혁명**

진보대통합의 파산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 행렬

지난 9월 4일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에서 민노당과의 진보대통합 안이 부결된 뒤 진보신당은 인맥에 따라 사분오열 되고 있다. 얼마 후인 9월 25일 민노당은 자본가 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하려다가 15표 부족으로 부결되었지만 그 다수파는 계속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당의 김영훈, 권영길, 강기갑은 원래 국참당과 통합과 인테도, 진보신당의 통합론자들을 데리고 국참당에 들어가기 위해 이번에 반대를 주장했다가 다수파로부터 “등 뒤에서 칼 꽂은 사람들”이라고 비판받았다.

통합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심상정은 심지어 박원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까지 한다. 재벌들한테 돈 받으며 시민운동 한 박원순 주위로 모인 “범민주진보 진영”에는 이들 노동자계급의 배신자들도 다 들어가 있다.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을 추구해 온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배신적 행보가 선거를 앞두고 노골화하고 있다.

적들과의 동거를 위한 배신자들의 안간힘

노무현 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민노당의 노동자계급 배신자들이야말로 실은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는 자들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2003년에 부산 한진중공업(김주익, 광재규 열사), 창원 두산중공업(배달호 열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했다. 또한 2005년에는 쌀 개방에 항의하는 농민들(전용철, 홍덕표 열사)은 여의도에서 경찰에 맞아 죽었다.

이런 민노당과의 통합을 위해 진보신당을 탈당한 노회찬, 심상정도 국참당과의

자본가 정당과 단절! 배신자들과 단절!

진보정당의 배신자들이 국참당, 민주당과의 공동(지방)정부에서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하면 할수록,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열망에 붙어서 기생해 온 자본가 계급의 2중대였음을 낱알이 보여줄 수 밖에 없다. 전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은 배신자들의 위치를 보다 확실히 해 줄 것이다.

노동자 동지들! 이러한 배신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말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염원을 자본가정당에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진보정당들의 이러한 흐름에 단호하게 반대하자! 노동자계급 배신정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을 향해 나아가자! **역명**

1% 부자들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 청년들의 대중점거투쟁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더욱 확산 심화되는 가운데 자본가계급은 전 세계적으로 긴축재정과 노동법 개악,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을 통해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맞선 분노에 찬 저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솟구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자” 운동은 1% 부자들을 위한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투쟁이다. 노동자 민중들이 더 이상 앉아서 자본의 위기를 전가당하지 않겠다고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결기이다.

월가 점령 시위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고,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번져가고 있다. 남반구의 칠레에서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생들과 교사, 노동자 등 25만 명이 무상교육 확대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이집트에서는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아랍혁명이 민주주의 투쟁을 넘어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성장 전환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27만 명의 노동자 민중들이 집값·물가 폭동에 항의하는 사상 최대 반정부 시위를 벌였는데, 이는 대중투쟁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조차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자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론 아랍혁명의 파급력이 이스라엘의 청년과 노동자들에게도 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중점거투쟁은 우리의 희망버스 투쟁이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유럽과 아시아, 북미,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 등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갔다. 2011년은 명백히 역사상 거대한 전 세계적 투쟁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특히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중점거투쟁은 우리의 희망버스 투쟁이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정리해고를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1%의 부자들을 위해 99%가 희생되는 이놈의 자본

가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월가점령운동처럼 우리의 희망버스운동도 광장을 점거하고 텐트를 치는 희망광장 운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국회청문회나 국정감사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다. 자본가 정당들 및 이들과 손잡는 야권연대/민주대연합과 단절하고 대중 직접행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역명**

-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공장을 점거하자!
- △ 등록금 폐지, 무상교육 쟁취! 광장을 점거하자!
- △ 치솟는 물가, 실업 반대! 거리를 점거하자!
- △ 1% 부자들을 위해 99%가 죽어나는 자본가 세상 갈아엎자!